

日韓の文字

現在日本では、漢字・ひらがな・カタカナの3種類の文字が使われています。のうち漢字は中国から伝わってきたもので意味を表す表意文字、ひらがなとカタカナは日本語の音を表すために漢字をアレンジして作られた表音文字です。この3種類の文字にはそれぞれ使い方に複雑な決まりがあり、そのため日本語が難しいと感じている韓国人も多いです。韓国ではハングルという表音文字が使われています。この文字は15世紀に世宗(セジョン)という王様が、漢字が読めない民衆にも簡単に学べる文字を作るように命令してできたもので、韓国語の音を表すのに非常に科学的、効率的にできています。

현재 일본에서는 한자, 히라가나, 카타카나의 3 가지 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한자는 중국에서 전해져 온 것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표의문자,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는 일본어의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한자를 변형시켜서 만든 표음문자입니다. 이 세 가지 문자에는 각각 사용에 복잡한 규칙이 있어서, 그 복잡함 때문에 일본어를 어렵게 느끼는 한국사람도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글이라는 표음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문자는 15세기에 세종이라는 임금이 한자를 못 읽는 백성들에게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씨를 만들도록 명령해서 생긴 것으로, 한국어 소리를 나타내는 데 매우 과학적, 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日韓の食べ物

日本と韓国ではそれぞれの気候や風土に合わせて様々な食べ物文化が発達してきました。日本料理は素材の味をそのまま活かし、盛り付けにも工夫を凝らして口だけではなく、目で見ても楽しめるようにできているのが特徴です。韓国料理は、肉や野菜の味を香辛料によってさらに引き出しているという特徴があります。一般に韓国料理といえば赤くて辛い食べ物というイメージがありますが、辛いだけではなく、その材料に最も合った味付けをするのが得意です。近頃では両国でお互いの料理を手軽に楽しめるようになりました。皆さんの住んでいるところにも日本料理や韓国料理が食べられる食堂やレストランがありますか。

한일 양국에서는 각각의 기후나 풍토에 맞춰서 다양한 음식문화가 발달돼 왔습니다. 일본요리는 재료 맛을 그대로 살리고, 입으로 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요리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요리는 육류나 야채의 맛을 각가지 향신료를 이용함으로써 더 깊이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요리라 하면 빨갛고 매운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매울 뿐만 아니라 그 재료에 가장 잘 어울리게 간을 맞추는 것을 잘 합니다. 최근에는 한일 양국에서 서로의 요리를 손 쉽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도 일본요리나 한국요리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까?

日韓の校則

校則という言葉から「制服」を思い浮かべる人は多いでしょう。高校によって違いはありますが、日本も韓国も多くの高校では制服が定められており、身だしなみについては厳しい規則が設けられているケースが多いです。しかし、その中でも日本の生徒は制服をファッションの一部と捉え、スカートの丈を調整したり、大き目のカーディガンを身につけたり、かばんに小物を付けたりして独自の個性を発揮しようとする傾向があるように見られます。中にはパーマをかけ、お化粧をする生徒も。韓国の女子高生も制服の丈をタイトにして体のラインを見せるなどの特徴が見られますが、校則が厳しい学校が多いのでしょうか、日本ほど自由なファッションを楽しんでいるようには見えません。

校則이라는 말을 듣고 ‘교복’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어도,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이 있으며, 옷차림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칙이 정해져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일본 고교생들은 교복을 패션의 일부로 생각하고 치마 길이를 조절하거나 큰 옷을 입거나, 가방에 소품을 달거나 해서 개성을 발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는 파마나 화장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한국 여고생도 교복을 몸에 딱 맞게 입고 몸의 라인을 강조하는 등의 특징이 있지만 일본만큼 자유로운 패션을 즐기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교칙이 엄한 학교가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新大久保と二村洞

皆さんは、新大久保と二村洞(イチョンドン)という街の名前を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新大久保は東京を代表する繁華街、新宿のすぐそばにあつて、韓国から来た人たちがたくさん住んでいる街です。新大久保の駅に降りると、すぐハングルの看板が目に入ってきます。街行く人の口から聞こえてくる言葉も日本語よりも韓国語が多いぐらいです。東京にいながらにして、韓国に旅行に来た気分になれます。二村洞はソウルにある街で、ここには反対に駐在員を中心とした日本人がたくさん住んでいます。日本語の看板が溢れ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ここでは韓国ではあまり見かけない自転車に乗る人や、日本語で立ち話をしている駐在員の奥さんの姿をよく見かけます。

여러분은 신오쿠보와 이촌동이라는 거리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오쿠보는 도쿄를 대표하는 번화가인 신주쿠 바로 옆에 있으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신오쿠보역에 내리면 곧 바로 한글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입에서도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도쿄에 있으면서도 한국에 여행 온 느낌이 듭니다. 이촌동은 서울에 있는 동네로, 여기에는 반대로 주재원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어 간판이 넘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일본어로 수다 떨고 있는 주재원 사모님의 모습이 눈에 띄입니다.

日韓の外食文化

学校からの帰り道、友達と何かを食べながらおしゃべりをするのは、ストレス解消にもってこいですね。日韓の高校生はどんなところで外食を楽しんでいるのでしょうか。日本ではだいたい学校の近所のファーストフード店や大型スーパーのフードコートなどに行くことが多いようです。韓国の高校生の間でもファーストフード店は人気ですが、学校の近所にあるトッポッキ(甘辛いソースとお餅をからめたもの)や韓国風おでんの屋台でも高校生の姿をよく見かけます。また、コンビニでカップラーメンなどを食べながらおしゃべりしている学生も多いです。どちらの国にも共通しているのは、手軽に食べられて、早く出てきて、値段も安いところに集ま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

하교길, 친구들과 뭔가를 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한일 양국의 고등학생들은 어떤 곳에서 외식을 즐기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에서는 대체로 학교 근처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게나 대형마트의 음식코너 등에 가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고등학생 사이에서도 패스트푸드 가게는 인기가 많지만, 학교 근처에 있는 떡볶이나 어묵 포장마차에서도 고등학생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수다 떨고 있는 학생도 많습니다. 양국에 공통적인 것은 쉽게 먹을 수 있고, 빨리 나오고, 가격도 싼 곳에 모인다는 것이 아닐까요?

日韓の季節行事

日本と韓国には四季の移り変わりを愛でる文化があります。日本の春を代表するのはお花見です。家族や友人と桜の花を見に行き、その下でお弁当を食べたりします。韓国の春は桜だけでなくツツジやレンギョウも鮮やかに咲くため、それを見に山に出かける人が多いです。夏はキャンプや海にでかける人が多いのは同じですが、韓国は日本に比べ山にある溪谷に行く人が多いようです。秋は紅葉狩りの季節、食欲の秋というのも共通しています。日本人にとっての冬の過ごし方はこたつでみかんを食べることでしょう。韓国人は暖かいオンドルの部屋でごろごろ過ごすのが大好きです。

한일 양국에서는 사계절의 변화를 즐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봄을 대표하는 것은 벚꽃놀이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벚꽃을 보러 가고, 그 밑에서 도시락을 먹기도 합니다. 한국의 봄은 벚꽃 뿐만 아니라 개나리나 진달래들도 화려하게 꽃피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 산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캠핑이나 바다로 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일본에 비해 산에 있는 계곡에 가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가을은 단풍놀이의 계절, 음식의 계절이라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일본사람에게 있어 겨울은 고다쓰 속에서 쿨을 먹는 계절입니다. 한국사람은 아늑한 온돌방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日韓の学校施設

日本と韓国の学校は一見してとてもよく似ていますが、よくよく見てみると違うところも目に付きます。韓国の学生が日本の学校で最も驚くのは、ほとんどの学校にプールがあ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水泳は日本ではとても重要視されていて、夏には学校主催の水泳大会もよく開かれます。また、部活動が盛んなため各部の部屋が整備されています。韓国はインターネット大国らしく、とても立派なインターネット設備を整えた学校が多いです。また、韓国の教室には必ず黒板の上に韓国の国旗である太極旗が掲げてあります。

일본과 한국의 학교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닮았는데 잘 보면 다른 점도 눈에 띕니다. 한국 학생이 일본학교 시설 중에서 가장 놀라는 것은 대부분의 학교에 수영장이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수영은 일본에서는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여름에는 학교가 주최하는 수영대회도 열립니다. 또 부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각 부의 방들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선진국답게 아주 근사한 인터넷설비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또 한국 교실에는 반드시 칠판 위에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가 있습니다.

日韓の学校行事

高校の学校行事として欠かせないのは「文化祭」や「体育祭」でしょう。日本の学校ではこの2つが別々に行われるのが一般的ですが、韓国の学校の場合は学校祭として同時に行われることが多いです。学校のお祭りの楽しみといえば、いろいろな料理やお菓子が食べられる模擬店でしょう。韓国の学校祭では、生徒のお母さんが活躍し、おいしい家庭料理を準備することが多いようです。一方、日本の文化祭では生徒たちが模擬店の企画運営に関わり、軽食を作ったり販売したりします。クラス単位で行われ、皆が協力し合い、他のクラスとは異なる出し物を準備するところも見どころの一つです。部活動やクラブ活動のグループが普段の学習の成果を発表したり、音楽好きなメンバーがライブ演奏をしたりというイベントは日韓共通のようです。

고등학교 행사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문화제’나 ‘체육대회’입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두 가지를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 학교의 경우는 학교축제로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축제의 즐거움이라 하면 다양한 요리나 간식을 맛볼 수 있는 모의점포입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의 엄마가 활양하고 맛있는 가정요리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점포 기획/운영에 종사하고 간식을 만들거나 팔거나 합니다. 반 단위로 모두가 협력하고 다른 반과 개성과 맛을 겨루는 것도 특징입니다. 부활동이나 동아리에서는 평소의 학습 성과를 발표하거나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공연을 하는 것은 양국 공통의 풍경입니다.

日韓の高校生的一天

修能試験と言われる大学入試の準備のため夜遅くまで勉強している、というイメージが強い韓国の高校生。人文系の学校の場合、夜10時頃まで学校で勉強するというのは普通のことのようにです。その後も学院という塾で12時、1時まで勉強するという生徒も。日本の高校でも進学校や塾に通う生徒の多くは遅くまで勉強しますが、朝早く家を出て帰宅が12時、という生活はそれほど一般的ではないでしょう。放課後に部活動をしたり、アルバイトをしたり(許可されている場合)するなど、日本の高校生の過ごし方は多様です。社会全体の大学進学への意識の違いが高校生の過ごし方にも影響を与えているのでしょう。

수능시험이라 불리는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이미지가 강한 한국 고등학생들. 인문계 학교의 경우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도 학원에서 12시, 1시까지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일본 고등학교에서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늦게까지 공부하지만,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귀가시간이 12시, 라는 생활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방과후에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허락돼 있는 경우에만) 일본 고등학생들의 방과후 스타일은 다양합니다. 사회전체의 대학진학에 대한 의식차이가 고등학생들의 하루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日韓の高校生の進路と夢

高校時代は将来の自分について深く考えるようになる時期です。日本でも韓国でも高校卒業後の進路としては大学進学が最も多くなっており、そのための受験対策にみんな頭をなやませています。では、日韓の高校生は将来どんな職業につきたいと思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2010年の調査によると日本の高校生がつきたい職業の第一位は公務員(20%)、2位が大企業の社員(19%)、3位が介護士・保健士・看護師(11%)だそうです。韓国では「小中学校の先生」、「会社・企業の経営者」、「デザイナー」が人気の職業だそうです。

<http://www.47news.jp/CN/201012/CN2010121501000566.html>

<http://www1.odn.ne.jp/youth-study/research/index.html>

고등학생 시절은 장래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로써는 대학진학이 가장 많고, 수험 대책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한일 양국의 고등학생들은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2010년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 고등학생이 되고 싶은 직업의 1위는 공무원(20%), 2위가 대기업 사원(19%), 3위가 개호사, 보건사, 간호사(11%)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초,중학교 교사’, ‘회사나 기업의 경영자’, ‘디자이너’가 인기 직업이라고 합니다.

日韓の間に横たわる諸問題

かつて日本と韓国は「近くて遠い国」と言われてきました。文化的にも地理的にも非常に近い両国ですが、かつて日本が韓国を支配していた不幸な過去のために、複雑な国民感情が未だに存在するのも事実です。韓国には日本に興味を持ち、日本人と交流したいと思っている人が大勢いますが、公の場で(とくに過去の)日本を賞賛するのは今でもタブー視されています。また、日本でも民族的偏見から韓国を過小評価する人が一部にいます。しかし、近年これまでになく人と人との交流が盛んになり、自分の目で両国をみて客観的に判断する人が増えています。日本と韓国が本当に「近い国」になれるために私たちには何ができるでしょうか。

한 때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려 왔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양국이지만, 일제강점기의 불행한 과거 때문에 복잡한 국민감정이 아직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에는 일본에 관심이 많고 일본인과 교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공공장소에서 (특히 과거의) 일본을 평가하는 것은 아직도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민족적 편견부터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일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자신의 눈으로 서로의 나라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정말로 ‘가까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